

신문 활짝 열고 禪바람 일으켰다



범어사 설선대법회 결산

3월 5일부터 7일까지 매주 토요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정식 등록 참가 인원만도 2985명, 10회 이상 참가로 수료증을 받은 사람 1374명, 10회의 참선 실수를 모두 참가한 사람 또한 421명에 달했다. 이로써 범어사가 '문(門) 없는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활짝 열어 놓은 선문(禪門)에 들어선 대중이 수 천 명을 족히 넘어섰다.

문이란 문 찾기가 어렵고, 문이 없어 문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가. 그만큼 올바른 법을 구하기 위해 문을 찾고 있는 사부대중들이 많고 선에 대한 대중들의 갈망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열 번에 걸쳐 진행된 법회 참가자가 큰 변동 없이 매주 4천~5천명을 유지한 일은 근래 들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 불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어사 설선대법회가 가져 온 선의 바람을 어떻게 내 안에 불어오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

매주 4천여명 참가...정식 등록자 2985명 중 수료 수료 1374명

설문 응답자 424명 중 84% "다시 열리면 참가하겠다"

"장소 좁아 불편" 아쉬워...선문화센터 건립 계기 돼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은 설선대법회의 성공을 밑거름으로 선증을 진작할 새로운 법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참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5월 7일 마지막 법회에서 배포된 1천여 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것은 424부. 그 결과에는 설선대법회에 대한 평가, 향후 법회에 대한 대중들의 바람,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뜨거워진 수행 열기가 반영돼 있었다.

이번 설선대법회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26명(29.7%), 만족한다가 246명(58%)로 전체 참가자 중 88% 정도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하반기에 법회가 열리면 다시 참가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355(83.7%)명이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법회에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문 뒤에 진행했던 질의응답과 재가질의자의 응답 시간 진행에 대해서는 354명(83%)이 유용하

나 도움이 됐다고 답해 질의응답이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공부를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법내용에 대해서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278명(65%), 어렵다 94명(22.1%), 쉽다 28명(6.6%)로 나타나 설법의 수준도 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어사가 불교계 최초로 도입했던 ID 카드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276명(65%)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46명(10.8%)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해 카드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떤 법회가 열리길 희망할까?

범어사가 참선 실수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329명(77.5%)로 나타나 참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직접 수행을 하겠다는 수행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번 법회가 일회성으로 그치

지 않고 간화선을 생활화, 대중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밖에, 범어사를 비롯해 전국의 사찰 법회 중 최근 1~2년 사이에 참석했던 법회 중 가장 유익했던 법회를 적는 주관식 설문에서는 '설선대법회'가 가장 높았다. 범어사가 다시 기획했으면 하는 법회를 묻자 설선대법회와 같은 법회나 참선 실수 관련 행사를 해달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법회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대상스님으로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등이 1, 2, 3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법회의 문제점은 없었을까?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했던 것은 법회 장소의 문제(54%)로 법회가 열렸던 보제루가 협소해 대부분의 대중이 야외에서 법문을 들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날씨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참선 실수 공간이 너무 좁았다는 의견도 높았다.

결과적으로 설선대법회로 촉발된 선 수행에 대한 열망은 향후 장기적인 범어사의 방향타를 '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확고히 했으며, 선의 우수성을 알리고 널리 체험하게 하는 선문화센터 건립 추진의 계기가 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회 성공 계기로 선문화 대중화 박차"

인터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범어사는 물론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설선대법회는 선의 진수, 선의 향기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전할 기초를 세운 귀한 법석(法席)이었다고 봅니다."

3월 5일부터 두 달여 간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회향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설선대법회를 마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절집 생활 40여 년 동안 가장 꿈을 많이 꾸던 시간이었다"고 밝힌 스님은 "설선대법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소년처럼 문득 문득 피어나는 꿈을 꾸었고, 때로는 뜻대로 안되면 어찌나 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설선대법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확신하는 스님은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번 법회를 회향하는 소감의 전부라고 할 만큼 부처님과 은사 동안 스님, 사형스님들이 두루 함께 응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선대법회 덕분에 범어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조실 지유 스님과 사형인 정관 스님까지도 칭찬을 들었다"며 웃음을 보인 스님은 "그 칭찬을 들으며 범어사의 미래가 곧 한국 불교의 미래로 달아 있다는 믿음으로 부단히 변화하고 노력해왔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의 선맥(禪脈)을 잇는 선승들이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이번 법회는 '제 2의 설선대법회'를 또다시 꿈꾸게 한다"며 향후, 숨어 정진중인 눈밖은 선지식을 대중법석에 모시고 선법문으로 깨달음의 장을 열어 보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100명의 대중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범어사는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부산시, 금정구와 함께 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선문화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설선대법회 뒷이야기

영산회상 그 모습 그대로

○...설선대법회는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0주, 두달 2주 동안 열렸지만 참가자들은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사계절을 체험하는 이채로움을 맛보았다.

3월 5일 첫날, 눈이 귀한 부산에서 101년만에 폭설이 내렸다. 일체의 시비분별을 덮어버리는 눈으로 첫 법회가 장엄된 것이다.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화 벚꽃 등 범어사 경내는 봄꽃 향기가 만발했으며 세찬 바람이 분 날도 있었고, 4월 9일 여섯 번째 법회에는 비가 내려 대중들은 우비를 입고 법문을 들었다.

또 불갑지 않게 뜨거운 햇볕 때문에 범어사는 일곱 차레나 선캠프를 무료제공하기도 했다.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조금의 미동도 없이 법문을 듣고 있는 수 천 명의 불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시공(時空)을 초월, 영산회상을 재현한듯 보였다.

"범어사가 달라졌다"

○...'국교보조금 횡령, 주지 자리 놓고 갈등.'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일간지를 장식했던 범어사. 심지어 '부산불교의 중심에 범어사는 없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범어사가 확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곳곳에



간화선법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가자들. 등록자 2985명중 10회 모두 참가한 수료자는 1374명에 달한다.

서 들려오고 있다. 대성 스님 취임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범어사가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부산불교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섰다는 것. 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토요일 참선 법회, 참선 템플스테이를 상설하며 선종대본산의 위상을 되찾은 범어사는 선승진 도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계속 선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기병치료제 '진득찰' 어디서?

○...처음으로 대중 법문에 나선 네번째 범어사주지 대성 스님 유나 인가 스님. 워낙 대중 법문을 하지 않았던 터라 설선대법회 법문 후 법문 요청이 곳곳에서 쇄도했다. 특히 법문 중 경험담과 함께 들려줬던 상기병치료제 '진득찰'이라는 풀에 대해 문의해 오는 전화가 많았다. 그만큼 공부에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



범어사는 설선대법회 참석 회수와 인거 참석 여부를 최첨단 ID카드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불교계 최초로 도입해 참가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국서 인터넷 통해 법회 시청

○...설선대법회가 진행되는 10주 동안 법회에 대한 관심은 범어사 밖에서도 뜨거웠다.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은 "직접 가서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스님들을 통해 법회의 분위기와 범어스님들의 법문 내용을 매주 듣고 있다"며 "도시에 있는 젊은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법회를 시청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법회가 장에서 스님들의 관심을 끈 이유에 대해서는 범어스님들이 조계종 수행가풍 진자의 실질적인 주역이며 차세대의 '중정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범어사 사하촌은 회색 범복 물결

○...매 토요일 설선대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오전부터 범어사 사하촌과 지하철 일대는 회색 범복 물결

을 입은 불자들이 물결을 이뤘다. 회색 범복을 즐겨 입는 부산 불자들이 만들어낸 진풍경이다. 지하철과 법회장에서 만나는 길고 긴 회색 행렬은 다른 지역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원고 준비하는 치밀함

○...이번 법회에서 '선 수행의 단계'를 주제로 법문에 나선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스님은 법문 원고를 책자로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한곳도 틀리지 않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성과 진지함으로 법회를 진행해 법문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비록 준비한 법문내용을 모두 낱말이 기억하지만, 대중을 존중하고 성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원고에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법문은 듣는 대중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공공의 행위입니다. 대중에게 더욱 완벽한 법문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원고로 남기고 또한 제대로 전달할 때 바로 당사자이며 보현행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 스님이 내다본 이 시대의 법문 양식이다.

"제방에 선지식 많아"

○...회향법회에서 사회자 지환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이번 법회에서 모신 열 분의 범어스님들 이외에도 훌륭한 선지식들이 제방에 많습니다. 또한 이 법회에 동참하고 싶어도 일정과 여건상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불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이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진할 것을 주문했다.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흥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장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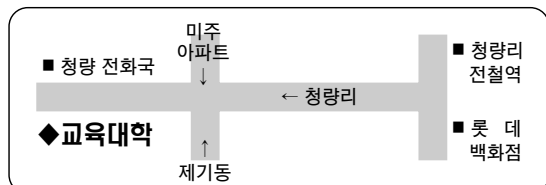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과정	예경의식 및 조·석 예법	20명	3개월
중급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3개월
전통의식과정	49재의식 및 전통교육	20명	6개월
요장·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사물 다루는 법	10명	3개월

2 응시 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1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가르매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 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운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